



南美, 포장전시회 '브라질팩' 개최 플렉스그래피 특별전시관 관람객 눈길 끌어

남미 최대 규모의 포장재 전시회인 Brasilpack이 지난 4월 24일부터 28일까지 상파울루 시내 아넴비 전시장에서 열렸다.

30개국 7백여개의 업체가 참가해 전시회 사상 최대 규모의 행사였던 제5회 Brasilpack은 각종 포장재 생산업체 및 장비업체가 신제품과 신기술을 선보이는 자리로 외국 바이어(40여개국) 및 일반 관람객 4만여명이 전시회를 방문했다.

2005년 브라질 포장업체는 전년 대비 8%가 성장한 약 3백10억 헤알(1달러=2.10헤알)의 매출을 보였으며, 금년 예상 매출액은 3백20억 헤알로 약 3%의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브라질 포장재 업계는 자재의 종류에 따라 플라스틱, 골판지, 금속, 종이, 유리, 나무 등의 6개 분야로 나뉘져 있으며, ABRE(Associacao Brasileira de Embalagens : 브라질 포장협회)가 각종 포장재의 품질 및 규격관리, 친환경성 여부 심사, 독성물질 관련 안전 여부 심사 등을 관장하고 있다. 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한해 동안 가장 많이 성장한 분야는 유리 포장재로 동제품 생산량이 전년 대비 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BRE 보고서는 또한 포장재 및 디자인이 매출에 큰 영향을 끼치는 산업으로 화장품 분야를 지목했다. 브라질은 현재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에 이어 세계 7위 화장품 생산국이며, 2005년 4백76억 달러 수출을 달성, 전년 대비 21.4%의 괄목한 만한 성장을 보였다.

전시회장 한편에는 포장 디자인 특별 전시관을 설치해 포장 관련 최신 유행 및 정보를 제공했고 Flexography 전시관을 별도로 마련, 각종 인쇄 장비를 전시했으며, 사용한 인쇄물을 배포, 관람객의 시선을 끌었다.

Brasilpack은 세계적인 전시회 이벤트 업체인 Messe Dusseldorf와 국내 업체 Alcantara Machado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ABEACO(철재 포장협회), ABIEA(라벨산업협회), ABIEF(플라스틱포장협회), ABFLEXO/FTA Brasil(플렉스인쇄협회), ABIMAQ(기계장비협회), ABIPLAST(플라스틱산업협회), ABIPET(페트산업협회), ABPO(골판지산업협회), ABRE(포장협회), ALIPLAST(라틴아메리카 플라스틱산업협회) 등이 협력단체로 참여했다.



▲ 남미, 포장전시회 '브라질팩'

Brasilpack에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Alcantara Machado 홈페이지 또는 전시회 사이트를 통해 직접 접촉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캐나다, 휴대용 와인 드링크팩 출시 환경친화적 소재로 포장한 컨테이너

캐나다 주류 브랜드인 The Three Thieves Bandit에서 유리병이 아닌 드링크 팩으로 와인을 포장한 Bandit 와인이 새롭게 출시됐다.

병에 든 와인이 대부분이었던 북미에서 처음으로 팩으로 출시된 와인이 많은 소비자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

The Three Thieves Bandit 와인이 주목을 받는 점으로는, 첫 번째로 편리함과 간편함으로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기존의 유리병으로 돼있던 와인과 달리 팩으로 만들어져 휴대용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캐나다에는 식사 시에도 와인을 자주 마실 정도로 와인 애호가들이 많으며 외출시나 가족 나들이용으로도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또 와인이 담긴 팩은 재활용으로도 가능한 소재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마신 후에도 쉽게 쓰레기통에 버릴 수 있다는 간편함이 있다.

두 번째로는 환경친화적인 소재의 와인 팩을 사용했다는 점이다.

The Three Thieves Bandit는 습지대를 보호하고 자연상태를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는 Kortright Centre의 후원과 함께 와인 팩 소재



▲ 휴대용 와인 드링크팩

가 환경친화적이라는 메시지의 광고도 동시에 펼친다. 이로 인한 광고의 효과로 The Three Thieves Bandit는 판매로 인한 수익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 자연을 보존하고 아끼는 기업으로 인식되며 소비자들은 자신들이 구입하는 제품이 환경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 다른 제품보다 환경친화적인 팩으로 만들어진 와인을 선택 확률이 높다.

토론토 일간지 Toronto star에 의하면 Bandit 와인이 병이 아닌 팩으로 출시된 점도 놀랍지만 북미에서 처음으로 환경친화적 소재로 포장을 했다는 점을 높이 샀으며 캐나다의 주류회사인 Liquor Control Board of Ontario(LCBO)의 대표 Bob Pater는 소비자들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제품 선택을 제공하는 동시에 환경을 위해하는 오염을 Bandit의 포장을 통해 줄일 수 있다고 말하며 다시 한번 Bandit의 환경친화적 소재를 높이 샀다.

또한 캐나다의 주류회사인 LCBO의 대변인 Daniele Gauvin에 의하면, 소비자들의 환경에 대한 자각에 따라 마케팅 전략도 변화함을 보여준다고 밝히면서 이미 유럽에서 시작된 환경친화적 포장이 북미에서도 서서히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번째로 저렴한 가격을 제공하고 있다.

와인 팩 한 개당 2백50ml의 용량으로 가격은 와인 4팩을 한꺼번에 컨테이너에 담아 \$13.95에 판매하고 있다. 또한 현재 캐나다 주의 2백여 개의 상점에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서든 지 구매가 가능하다.

캐나다인들은 캐나다의 전통 와인인 Ice Wine 등 축제나 생일 이외에 평상시 식사 시에도 와인을 즐기며, 해마다 와인 페스티벌이 열릴 정도로 시장이 크다. 캐나다 통계청 자료를 살펴보면, 캐나다 내에서 제조돼 판매되는 와인 과 캐나다로 수출되는 와인이 해마다 증가하는 것을 통해 캐나다에서의 와인 시장의 규모를 예상할 수 있다.

캐나다 통계청에 의하면 한국의 아이스 와인 수출이 2004년 캐나다 달러로 40만1백47에서 2005년 39만5천4백60으로 줄어들었다. 또 한국의 와인 캐나다 수출은 2003년 2만4천8백37에서 2004년 17만2천9백81로 증가했지만 2005년도 2백46으로 대폭 감소했다.

캐나다에는 아직도 프랑스나 독일 등 유럽 산 와인 수입이 많지만 벤처 프로그램을 통해 캐나다 내에서 제조되는 와인이 소비자를 겨냥한 와인 마케팅에 의해 많은 레스토랑에 판매된 사례가 방송을 통해 적잖게 소개되고 있다.



표, 포장용지 시장 과잉 공급 수요악세 어려움 겹쳐

1분기 아시아 포장용지 시장은 과잉공급과 수요 약세로 인한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과 홍콩, 동남아시아시장의 2006년 1분기 가격은 2005년 4분기와 비교해 White-Lined Chipboard는 톤당 10달러 하락, Kraft-Top Liner와 Testliner도 톤당 5달러 하락했으며 Unbleached Kraftliner는 톤당 20달러 상승했고 Recyled Fluting은 별다른 가격 변화가 없었다.

중국 내 포장용지 생산이 급속히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포장용지의 주요고객인 전자 제품 생산 회사들은 강도와 인쇄적성이 뛰어난 미국과 러시아산 포장용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Kraft-Top Liner와 Testliner는 과잉공급으로 가격이 하락하고 있지만 낮은 품질로 인해 바이어들의 구매가 미미한 실정이지만 Kraft-Top Liner 생산업체들은 Unbleached Kraftliner와 톤당 1백 달러 이상의 가격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되는 2분기부터 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국의 골판지원지 생산설비 신증설은 계속 이어져 과잉공급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데 Zhangziagang Huaxing Paper는 연산 15만톤의 Recyled Fluting 설비를 7월부터 가동할 예정이며 Zhejiang Jian Paper Packet도 연산 25만톤의 Recyled Fluting 설비의 가동을 준비 중이다.

Zhangziagang Huaxing Paper는 2007년 중순 가동을 목표로 연산 25만톤 규모의 재생 골판지원지 생산설비 신설도 계획 중이며 Lee&Man사도 최근 총 1백3만톤의 세 대의 재생 라이너보드 설비의 가동을 준비 중이다.

그리고 Nine Dragon사도 대규모의 설비 신설을 계획하고 있다고 알려져 중국 골판지원지 시장의 과잉공급 상황은 쉽게 해결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백판지 시장도 과잉공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원가 상승과 에너지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홍콩과 중국,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Grayback과 WLC는 톤당 10달러 하락했다.

아시아지역 주요 생산국가인 인도네시아, 한국, 대만은 중국 수출의 활로를 찾으려 노력하고 있지만 중국의 생산능력 증가로 인해 무위에 그치고 있다.

중국의 백판지 생산업체들 또한 작년부터 누적된 재고를 감당하지 못해 낮은 가격으로 인도, 동남아시아, 일본과 중동으로 수출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과 대만의 생산업체들은 과잉공급을 벗어나기 위해 조업중단과 설비폐쇄를 실시하고 있지만 관계자들은 조업중단의 효과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이다. 특히 중국의 백판지 설비 신증설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알려져 과잉공급 상황은 더욱 악화될 예정이다.

APP China가 연산 30만톤의 백판지 설비의 신설을 준비 중이며 Nine Dragon도 연산 50만톤의 Grayback Coated Duplex Board 설비를 내년 초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美, 라이너지 수출가격 상승 생산량 축소

미국 라이너지 수출 가격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라이너지 생산업체들은 타이트한 마켓시장을 감안해 생산량을 축소시켰다. 2월 미국 라이너지 수출 생산량은 전년대비 13.2% 감소한 20만5천톤이었다. 지난해 미국의 라이너지 생산업체들은 내수의 수요약세로 인해 유럽, 중남미, 아시아로 눈을 돌려 수출량을 증가시켰다.

미국의 몇몇 라이너지 생산업체들은 4월 유럽에서 톤당 20달러의 가격인상을 시도하고 있어 남부유럽의 C.I.F.(운임 및 보험료포함 인도)는 톤당 5백60달러 수준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으며 유럽의 크라프트 라이너지 공장들은 12월과 1월의 가격인상에 이어 톤당 25유로의 가격인상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의 라이너지 가격상승은 2005년 북미지역의 라이너지 설비폐쇄로 인한 공급량의 감소가 주요원인으로 알려졌다.

최근엔 유럽의 테스트 라이너지도 독일과 프랑스에서 연산 1백20만톤을 생산하는 4기의 설비가 가동되고 SAICA가 연산 40만톤의 재생 골판지 원지 설비의 가동을 시작하면서 공급과잉 상황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몇몇 설비의 폐쇄도 이어져 유럽의 골판지원지 생산능력은 2005년 3.8%에서 1.9%로 다소 줄어 들었다.

미국 라이너지 생산업체들은 중국 수출가격을 인상하려 시도하고 있지만 중국의 재생 골판지 원지 생산능력이 확대되면서 다른 나라보다 낮

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미국의 대중국 라이너지 보드 수출은 2005년 전년대비 16.4% 감소한 29만1천4백톤을 기록했다.

中, 일부 수입지 가격 상승 북미, 러시아산 미표백 크라프트지 라이너지 상승

2006년 1분기 중국 종이, 판지 가격은 지종별로 다른 모습을 보였다. 펄프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몇몇 수입 지종은 가격이 상승했으나 내수용 지종은 공급과잉으로 인해 보험세를 유지하거나 하락했다.

중국의 신증설은 계속되어 작년에 77만톤의 신문용지 설비의 신설이 있었다. 올해엔 Shandong Huatai Paper가 40만톤의 신문용지와 LWC 설비 신설을 포함해 1백15만톤 이상의 신설이 예정돼 있다.

중국의 연간 신문용지 소비는 4백만톤 이하지만 단기간 동안 신증설이 이어지면서 중국 신문용지 생산업체들은 어려움을 겪으며 극심한 경쟁을 하고 있다. 그 결과 1분기 신문용지 가격은 톤당 2백위안 하락했는데 이와 반대로 수입 신문용지 가격은 변화가 없었다.

캐나다, 미국, 한국에서 수입되는 신문용지에 대해 9~78%의 관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중국 제지업체들은 유리한 입장에 있었지만 계속된 신증설로 인한 과잉공급으로 이제는 초과물량을 수출로 돌리고 있다. 저가의 중국산 신문용지의 수요는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올해에도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분기 LWC



와 백상지의 가격은 펄프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톤당 2백위안 올랐지만 내수용 지중은 보합세를 유지했다. 중국은 2005년 총 연산 1백15만톤의 인쇄용지 설비의 신설이 있었다.

중국경제의 성장과 더불어 제지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지만 과다한 신증설로 인해 과잉공급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중국의 인쇄용지 생산업체들은 1분기 동안 가격인상을 시도했지만 고객의 70~80%에 이르는 공급자들의 반대로 무산돼 가격은 변화가 없었다.

포장용지 부문에선 북미와 러시아산 미표백 크라프트 라이너는 톤당 2백위안 상승했지만 수입된 크라프트-탑라이너와 중국산 Recycled Flutting은 변화가 없었다. 전자제품과 전기기구의 생산업체들은 강도가 인쇄적성이 뛰어난 수입품을 선호하고 있는 실정이다.

판지는 여전히 낮은 가격을 유지하며 변화가 없었는데 백판지 생산업체와 공급업체들은 과잉공급이 만연한 백판지 업계가 장기적인 불황에 빠져드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

中, 골판지원지 설비 신설계획
2008년 미국 생산량 76% 달성 예상

중국의 거대 골판지원지 생산업체인 Nine Dragons와 Lee&Man사가 총 3백50만톤의 재생 라이너보드와 골심지 설비의 신설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2008년 중국의 골판지원지 생산량은 총 2천6백만톤으로 미국의 생산량의 76% 수준에 달하게 되었다.

중국의 경제 성장과 더불어 골판지원지의 수요도 급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업체들은 신설을 계획하고 있다.

전 세계 골판지원지 생산은 2005년에 비해 3.6% 증가했으며 아시아지역의 생산도 전년대비 7.8% 증가해 아시아가 세계 최대 골판지원지 생산지역으로 나타났다. Nine Dragons는 주식상장을 통해 확보한 5억 3백60만 달러를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대규모 설비를 신설하기로 결정하고, 총 4대의 설비를 내년까지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새로운 설비가 가동된다면 Nine Dragons는 연산 총 5백35만톤의 생산능력을 갖추게 된다.

Nine Dragons는 총 5만2천3백만 달러를 투자해 연산 50만톤의 라이너보드 설비를 55만톤으로 증설할 계획도 가지고 있으며, 2008년까지 두 대의 전력을 설치해 100MW의 전력을 갖출 예정이다.

Lee&Man사는 연산 43만톤의 Kraft-Top Linerboard와 Testliner 설비인 PM8기와 PM9기 그리고 연산 30만톤의 PM10기와 PM11기를 2007년 중에 가동할 예정이다.

Nine dragons와 Lee&Man사는 미국으로부터 대량의 폐지를 수입해서 중국의 공장에 공급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미국에 자회사와 펄프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은 폐지수입량의 상당부분을 미국에게 의존하고 있으며 2005년 미국 수출량의 53%를 차지하는 7천7백만톤의 폐지를 수입했으며 이는 2004년에 비해 32%나 증가한 수치이고 5년 전에 비해 무려 3배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